



“봄여름가을겨울 데뷔 30년 인생은 참 변화무쌍 하구나...”

‘친구와 우정 지키는 방법’ 가수 김종진

전태관과 이인삼각으로 뒀던 30년 암투병 쾌유 빌며 프로젝트 진행 난 친구의 빛으로 존재한 그림자 후배들이 재해석해 음원 공개 우리 음악 원천수로 강물 이뤄

데뷔 30주년을 맞은 밴드 봄여름가을겨울(김종진·기타 겸 보컬, 전태관·드럼, 이상 62)의 김종진은 요즘 생각이 많다.

밴드로 30년을 버텨낸 자축 순간에 멤버이자 36년 지기 전태관이 압과 싸우고 있어서다. 전태관은 6년 전 신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듯했으나 2년 뒤부터 암세 포가 어깨뼈, 뇌와 두피, 척추, 골반까지 전이돼 병상에 있다.

“태관은 성격해도 읽으며 잘 이겨내고 있어요. 옛 그저께 태관이 병실에 갔을 때, 미국에서 3집 작업하며 두 달간 KFC 닭 날개를 엄청 먹은 얘기를 했어요. 그날 둘이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옛날 음악 하던 얘기를 많이 했네요.”

수많은 무대에 함께 올랐지만 돌아보니 떠오르는 순간은 이렇게 소소하다. 1집 내기 전인 1985년 대기업 입사원서를 쓴다는 전태관의 마음을 돌리려고 설악산에 데리고 가 김치 라면을 끓여준 기억 같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종진은 홀로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한 듯 보였다. 5년 전 25주년 앨범 ‘그르릉!’(GRRRNG!)을 냈을 때만 해도 둘은 “우리 야성은 진행형”이라고 자부했다.

두 시간에 걸친 서른 번의 봄여름가을겨울 스토리는 자연스레 절반의 지분이 있는 전태관으로도 흘렀다. 그때마다 김종진은 눈에 물기가 스미며 먹먹해졌다.

◇ 김현식과 약속 지키려 결성...“샌님” 같던 태관, 연주하면 ‘광폭’

봄여름가을겨울 5집(1995)에는 ‘외로움의 파도를 타고’란 연주곡이 있다. 부제가 ‘나의 동반자 태관에게

이 곡을 바친다’다. 당시 김종진은 음악 세계가 뚜렷한 뮤지션들이 외롭게 사는 세상이란 생각이 들어 전태관에게 이 곡을 선물했다.

“태관은 라틴 음악을 잘하지만, 한국은 팝 음악을 해야지 라틴 장르를 생계를 꾸릴 환경이 못 되잖아요. 그때 태관이 ‘외로움의 파도를 타고 자기 삶을 서핑하는 남정네’로 보여요. 태관이 연주할 마음껏 펼칠 연주곡을 만든 거죠.”

고려대 사학과 출신 김종진과 서강대 경영학과 출신 전태관은 1982년 12월 24일 뮤지션들의 사랑방이던 방배동 카페 시나브로에서 처음 만났다. 지금은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인 전필립이 미국 버클리음대 유학을 앞둔 모인 날이었다. 정영원은 그날 전태관을 데리고 왔다. “다들 필립 형에게 유학 갈 거면 드러머 한 명은 찾아놓고 가랬더니, 원영 형이 태관을 데리고 왔어요. 태관은 1년 재수를 해 대학교 1학년, 전 2학년이었죠.”

전태관의 첫인상은 말쑥한 ‘샌님’ 같았다. 그런데 무대에서 연주를 시작하니 ‘광폭’ 했다.

“1985년 11월 현식이 형이 우릴 동부이촌동 집으로 불러 ‘밴드를 할 건데, 형이랑 할래?’라고 제안했죠. 키보드 연주자가 필요해 태관이 유재하를 추천했죠. 정말 흥분됐죠.”

◇ 소리·연주에 대한 고집·웬메이드 위한 시도...“외면당한 6집, 혼신 다한 역작”

봄여름가을겨울은 기타와 드럼의 이색 조합에도 분업이 뚜렷했다. 김종진이 작곡과 보컬을 겸했다면, 전태관은 자신의 고집대로 연주자로서만 포지셔닝했다. “초창기부터 공동 작업을 제안해도 태관은 ‘난 그냥 연

주자야’라고 고집했죠. 태관에겐 ‘난 그래’ 정신이 있거든요. ‘비 오는데 왜 우산 안 써?’라고 하면 ‘난 그래’란 식이죠.”

그러나 완벽한 소리에 대한 집념, 퓨전 재즈·블루스·록 등 장르를 품는 유연함은 같았다. 어떤 밴드보다 앨범에 연주곡 비중을 높여 정체성도 불똥었다. 이런 지향점은 때론 대중적인 성취를 가져왔고, 때론 아프게 외면당했다.

그중 2집(1989)과 3집(1992)은 상업적인 성공의 절정을 이뤘다. 핑크한 리듬에 재즈가 섞인 2집 ‘어떤 이의 꿈’은 ‘나는 누굴까? 내일을 꾸미는가?’란 편지 라인이 통했다.

◇ 후배들 헌정곡에 ‘쇼크’...“봄여름가을 류 생긴 것 같아”

김종진은 자신들의 어떤 시도보다 멋진 작품은 후배들의 정성이 모인 ‘친구와 우정 지키는 방법’ 프로젝트라고 했다. 혁오의 오혁×이인우, 윤도현×정재일, 심센치×함버트 등은 봄여름가을겨울 노래에 새 감성을 입혔다. 지난달부터 2곡씩 공개된 음원들은 뉴재스윙, 어반 R&B 등으로 탈바꿈했다. 11일에는 황정민(배우)×함춘호(기타리스트)의 ‘남자의 노래’, 윤종신×최원혁(베이스리스트)의 ‘첫사랑’이 공개된다”고 한다.

후배들의 헌사에 대한 화답으로 김종진은 8집(2008)에서 아카펠라로 선보인 ‘땡큐송’을 ‘친구들’(스윗소로우, 이시문 등)과 다시 불러 프로젝트 캠페인 송으로 내놓았다.

그는 “태관이 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태관의 그림자였다”며 “햇볕을 받아야 뒤에 생기는 게 그림자 아닌가. 내가 태관이란 빛을 받았기에 존재했다. 정말 기동 같은 친구”라고 돌아켜냈다.

“우리 이인삼각으로 둘의 발을 묶고 뒀죠. 세상 사는 속도가 같은 사람은 없는데, 전 늘 더 잘하자고 채근했어요. 3년 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아들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하니 힘들어했죠. 그걸 보면서 ‘태관도 힘들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진은 “제가 술이나 ‘잡기’도 대인관계 좋은 태관에게 다 배운 거 같아요? 태관은 지방 공연 가면 남는 시간에 당구장에 데리고 갔죠. 당구를 못 쳐서 제가 기타를 꺼내 손가락을 풀면 이렇게 말했어요. ‘밴드를 위해 너도 당구를 치라’고요. 하하.” /연합뉴스

BTS T-shirt: Japanese TV show cancels BTS appearance over atomic bomb shirt

© 9 November 2018

f t i e s Share



일본, 방탄소년단 방송 취소는 ‘자충수’ 빌보드·CNN·BBC ‘역사적 배경’ 소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음악 방송 취소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 받으며 국제적인 이슈가 됐다. 여러 매체는 방송 취소 사유가 된 멤버 지민의 티셔츠가 논란이 된 것은 양국의 오래된 정치·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빌보드는 9일(이하 현지시간) ‘티셔츠 그 이상: BTS 출연 취소는 한국과 일본의 어색한 K팝 관계를 보여준다’는 제목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했다.

빌보드는 일본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이 멤버 지민이 과거 입을 이라바 ‘광복절’ 티셔츠를 문제 삼아 출연을 취소한 데 대해 “국가 간의 오랜 정치적, 문화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티셔츠가 방송 취소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빌보드는 이 과정에서 험한 움직임을 언급하며 “광복 관계는 정치적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으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 일본군 위안부 등 미해결된 전시 문제, 일본 제국을 상징한 전범기(육일기) 문제 등을 짚었다.

미국 방송 CNN도 9일 인터넷판에서 ‘원자폭탄 셔츠에 대한 분노로 BTS 일본 공연이 취소됐다’고 방송 불발 소식을 전했다. CNN은 “한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유산에 특히 민감하다”며 1910-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고통받아 양국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방송 BBC도 9일 인터넷판에서

‘BTS 티셔츠: 일본 TV 쇼가 원자폭탄 티셔츠로 BTS 출연을 취소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민의 셔츠가 논란이 된 이유로 양국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했다.

BBC는 ‘원자폭탄 셔츠에 한국의 독립 투쟁이 담겨있다’며 “일본 일본인들에게 일본 식민 통치를 받은 한반도의 독립을 가져온 폭탄을 축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BC는 또 최근 한일 관계가 더 긴장됐다면 지난달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 판결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박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논란은 지난달 일본의 한 매체가 지민이 과거 입을 셔츠를 문제 삼아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지민의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의 흑백 사진과 함께 애국심(PATRIOTISM), 우리 역사(OUR HISTORY), 해방(LIBERATION), 코리아(KOREA) 등의 영문이 담겼다.

한국홍보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SNS에 “일본이 방탄소년단의 방송 출연을 막고, 극우 매체에서 이런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CNN, BBC 등 세계적인 언론에 이런 상황이 다 보도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의 젊은 팬들에게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4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돌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정당정책 토론회	10 좋은아침
10	00 제2차 정당 정책토론회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최고의 이혼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기분 좋은 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UHD 스페이스 강원 (재) 35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모도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스교실(재) 55 5 MBC 뉴스	00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15 MBC 플러스특선 단판 오피스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라(재) 30 생방송 TV블로그 금지력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여순사건 70주기 특별기획 가려진 시간, 고여있는 눈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최고의 이혼	00 배드파파	00 여우각시별4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안녕하세요	10 핑크피쉬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연명 1~2부
12	00 클래식 다이어리 50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세계 최고를 찾아라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매운 두부찌개와 도라지 황태포무침〉	17:15 마샤와 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당동영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고고다이스 공룡탐험대	14:30 몬카트(재)	〈전쟁과 평화의 땅, 북 코카서스를 가다 축해의 선물 아디게야〉
08:45 방귀대장 뽕뽕이(재)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뽕뽕뽕 뽕뽕로	15:15 파파리카	〈불타오른 1부 타오르네, 지리산〉
09:15 뽕뽕로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똑딱맨	23:55 배워서 남줄(재)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4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영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정답은 의외로 쉽게 찾아질 것이다. 48년생 역량을 발휘하고 정성을 다 해야만 한다. 60년생 급하게 서두른다면 완성에 이르던 일도 버리게 될 것이다. 72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84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22, 94
丑	37년생 실현 가능한 방책을 강구하자. 49년생 내부적인 단속부터 잘 해두지 않으면 다 잡은 사냥감을 놓치게 된다. 61년생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73년생 고차원적인 단계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 85년생 원인 요소와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90, 39
寅	38년생 정확한 정세 판단이아말로 성사 여부를 좌우한다. 50년생 불의의 사태를 예견할 수 있어야겠다. 62년생 생 끝까지 계속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4년생 성장을 위한 진통제가 되리라. 86년생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주견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69, 18
卯	39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른다. 51년생 양상을 살펴본 후에 판단하자. 63년생 이러지고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다. 75년생 김성과 홍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87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소기의 결실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84, 50
辰	40년생 양중모색해야 한다. 52년생 필승의 신념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다. 64년생 지금은 절대로 나서지 말고 잠자코 있어야 할 지경이다. 76년생 시작만 요란할 뿐이지 별것이 없다. 88년생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피하자. 행운의 숫자 : 52, 08
巳	41년생 사소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53년생 잘못 하다가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니라. 65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실효적인 결과에 이르게 한다. 77년생 민감해져 잊지는 않든지 살펴보아야겠다. 89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다. 행운의 숫자 : 98, 84

11월 12일(음 10월 5일戊申)

午	42년생 어떠한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천양지차이다. 54년생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66년생 털어 놓고 상의해 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78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까지 수월할 것이다. 90년생 기득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 행운의 숫자 : 16, 77
未	43년생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다. 55년생 오는 이 막지 말고 가는 이 잡지 말자. 67년생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 79년생 전후사정을 살펴서 꼭 이우를 따져 보아야만 실수 하지 않을 것이다. 91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82, 11
申	44년생 속성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한다. 56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은근히 진행 될 수도 있다. 68년생 세분화 할수록 이롭다. 80년생 치열함과 집요함이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92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가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00, 78
酉	45년생 겸손하자. 57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9년생 수월해질 것이 많다. 81년생 사소한 국면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평정 없이 대할 일이다. 93년생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하자. 행운의 숫자 : 12, 07
戌	34년생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보인다. 46년생 차예로 확실하게 청산하는 것이 길조를 부른다. 58년생 의로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70년생 뜻하는 바대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82년생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경사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6, 42
亥	35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다. 47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한다. 59년생 생소한 길목에 놓여 있으니 넘겨짚지 말아야 한다. 71년생 관리와 유지에 철저하라. 83년생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차질을 빚는다. 행운의 숫자 : 61, 5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화영” ☎010-9790-8237